

강진군-남미륵사, 내년 꽃축제 관광 활성화 다짐

지역상품권 지급 상권 활력 남미륵사 주차장 유료 전환 주차비 1만원, 상품권 제공

강진군과 강진 공동면에 있는 남미륵사가 봄꽃 축제를 기획해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4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2일 세계불교 미륵대중 남미륵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4~5월 남미륵사 일원에서 서부해당화, 철쭉 등 봄꽃을 주제로 한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진군은 △축제 종합 및 홍보 수립 △진입도로 확·포장 조기 추진 △주차장 추가 확보 △주차 안내 및 주차료 징수 △화장실 관리 및 쓰레기 관리 △지역특산물

및 먹거리 등 판매시설 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남미륵사는 △축제기간 사찰시설 개방 △탐방로 개방 등 강진군 관광정책에 협조하며 지역경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강진군은 기반시설 조성 등 축제를 준비하고 남미륵사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남미륵사 법흥스님은 장학기금과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해 지역 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군은 무료로 운영되던 남미륵사 주차장을 유료 전환하고 관광객들에게 강진 사랑상품권을 증정해 읍내권 관광객 유입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남미륵사를 찾은 관광객은 300만명으로 추정되며 주차비를 1만원으로 책정할 경우 강진사랑상품권 1만원을



강진왕 강진군수와 남미륵사 법흥스님이 협약서를 보여주고 있다. 강진군 제공

300만명에 제공해 300억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강진군은 꽃의 도시로 4월 기준 장미의 경우 전국 6.2%(전남 69%)인 15.3ha, 수국은 전국 25%(전남 91%)인 5.6ha, 꽃작약은 전국 80%(전남 95%)인 24ha

의 규모를 생산하고 있다.

강진군은 꽃의 강점을 관광객 유입의 핵심 요소로 활용하기 위해 '美프로젝트'를 통해 봄에는 유채, 여름·가을에는 수국과 구절초를 통해 꽃향기 가득한 강진으로 관광객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강진왕 강진 군수는 "남미륵사는 동양 최대 아미타불 불상과 서부해당화, 철쭉, 연꽃 등을 품은 사찰이자 숨겨진 보물 같은 관광지"라며 "이번 협약을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객 500만명 유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견인차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미륵사는 동양 최대 규모 아미타불 불상이 있으며 40년 동안 가귀은 50만 그루 서부해당화와 1000만 그루 철쭉이 봄철이면 장관을 이루며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강진의 명소다.

강진=김윤복 기자

전문의 배치 소아청소년과 진료 진도군, 0~18세 대상

진도군이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지난 1일부터 시작했다.

4일 진도군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진료는 전문의가 0~18세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료하며 토요일은 격주 진료로 진도전남병원 1층에서 운영한다.

소아청소년 환자 일반 진료와 처치(치료 및 처방), 영·유아 건강검진 등을 받을 수 있다.

오는 7월부터 10여명이 입원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 전문 입원실과 전문 간호사와 장비를 갖춘 소아청소년 병동도 운영할 계획이다.

진도=백재현 기자

농기계임대소 토요일 확대 운영 무안군, 편의 제공·영농비 절감

무안군(군수 김산)은 농업인들의 편의 증진과 영농비 절감을 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소를 이달 한달 동안 토요일에도 확대 운영(오전 9시~오후 5시)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3시간을 더 연장해 운영하는 것으로 늘어나는 임대 농기계 수요를 충족해 편리하게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일찍 농기계를 빌리러 오는 농업인 불편 해소를 위해 임대 전날 오후 4시~6시 출고하는 사전출고제도 함께 운영한다.

농기계를 직접 운반할 수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운반 서비스와 함께 영농현장 긴급출동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는 등 농업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안=김행언 기자

디오부치 총리 고향과 교류 추진 신안군, DJ와 공동선언 인연

신안군은 일본 군마현 나카노조정과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고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상호 우호교류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한일 파트너십'이라고 불리는 공동선언은 1998년 10월 도쿄 영빈관에서 일본을 공식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내각총리대신에 의해 채택됐다.

오부치 총리는 과거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 사죄라는 직접적이고 분명한 표현을 했으며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당사자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지난 2000년 재임 중 과로사했다.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외국 정상 장례식에 참석해 애도의 뜻을 전하기도 한 한일 외교사에 의미가 있는 인물이다.

신안=홍일갑 기자

황칠나무 지리적표시 61호 등록 해남군, 황칠품목 전국 최초

해남군은 지역특화작목인 '해남황칠나무'가 황칠나무 품목 전국 최초 지리적 표시 제61호로 등록됐다고 4일 밝혔다.

지리적 표시제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품질과 명칭 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특성에서 나온 것임을 인정해 그 명칭을 법으로 보호하는 제도로 해남군에서 생산되는 황칠나무에만 '해남황칠나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부여된다.

황칠나무는 인삼 및 가시오가피와 같은 파낙스 계열 상록활엽수로 나무인삼이라고도 불리며 남해안과 제주도가 주산지다. 체내 독성물질 배출은 물론 면역력을 회복하는 데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전남 비교우위 산림자원으로 산림 6차산업화 선두주자로 각광받고 있다.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 일원 지역에서 수령 약200년 이상의 황칠나무 대규모 자생 군락지가 발견되는 등 역사성을 인정받고 있다.

해남군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507ha를 식재하는 등 황칠산업 육성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은 해남군황칠협회와 함께 생산, 가공, 유통 등 융·복합 산업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남=전연수 기자



무안군, 수산자원 조성 42만마리 방류
무안군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현경면 홀동항, 월두항을 비롯한 청계면 구로항 등 3개소에 고부가가치 어종인 감성돔 종자 28만3000마리와 점농어 종자 14만4000 마리를 방류했다.

무안군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현경면 홀동항, 월두항을 비롯한 청계면 구로항 등 3개소에 고부가가치 어종인 감성돔 종자 28만3000마리와 점농어 종자 14만4000 마리를 방류했다.

무안군 제공

목포시, 부주동 초당산에 '황토 맨발길' 1km 개통

목포시가 부주동 초당산에 황토 맨발길을 조성하는 등 명품숲을 통한 녹색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목포시는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옥암신도시 초당산(옥암유치원 옆 부주과출소 건너편)에 맨발 둘레길 1km를 개통했다고 4일 밝혔다.

목포시의 맨발길 조성은 양울산 '맨발로 청춘길'에 이어 두번째다.

초당산 맨발길에 세죽장과 음수대, 휴먼지 털이기, 신발보관함, 휴게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했으며, 일상을 응원하는 감성 문구를 부착했다. 경사면에는 보랏빛의 맥문동 꽃과 왕벚꽃나무를 식재해 단조로운 숲길에 계절의 색깔을 입혔다.

초당산은 신도심의 대표적인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한 곳이다. 시는 이번 맨발길 조성으로 주변 시민들에게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일 몸과 마음이 청년이 되는 '오감만족 맨발길 걷기 행사'를 갖고 맨발길을 정식 개통했다.

지난 5월 중순 임시개통한 이 곳은 아름다운 맨발 숲길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하루 200여 명이 찾는 명소가 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초당산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곳으로 유치원·초등학교·주

거단지와 가까워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안전하게 숲길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옥암수변 뚝방길 1.0km, 양울산 편백향길 1.2km, 산정산 느림길 1.5km, 대양산 단힐링길 1.5km, 대삼학도에는 무장애길을 조성해 건강한 맨발길을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이번 오감만족 맨발 걷기행사는 자연을 감상하고 쉽고 치유를 얻을 수 있는 웰니스 행사"라며 "맨발 걷기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에 활력소가 되고, 걸으면 건강한 도시 목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완도군, 수산물 '불모지' 라오스 시장 공략

완도군이 한국 수산식품 불모지인 라오스 시장을 집중 공략한다.

4일 완도군에 따르면 이날부터 4일까지 라오스 수도인 비엔티안에서 (사)남도농수산물수출협회 소속 수출 업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완도 수산물 판촉 행사를 갖는다.

이번 판촉전은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다. 비엔티안 소재 콕콕 메가마트에서

진행한다.

판촉전에는 완도다영어조합법인과 (유)완도세계로수산, ㈜해청정, 다시마전복수산, 해성인터내셔널 등 5개 업체가 참가해 해조국수, 전복 차우더, 광어죽, 전복 절편 등 다양한 수산식품을 선보인다. 완도 수산물을 이용한 요리방법을 소개하고 시식회도 연다.

라오스 대형 유통체인에 완도 수산물

이 입점하게 된 것은 지난해 11월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2월 열린 첫 번째 판촉 행사에서도 전복 차우더와 해조국수, 전복 절편, 해초 비빔밥, 김 등 완도산 수산식품이 라오스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완도군 관계자는 "7월에 추가로 판촉 행사를 진행해 라오스에서 수산물 소비 트렌드를 주도해 나갈 방침"이라며 "정경바다에서 생산되는 완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려 더 많은 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최경철 기자

강진=김윤복 기자